

본문에서 발견하기

-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?

-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?

- 바울의 첫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?

-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?

- 바울의 세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?

- 바울의 네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?

- 성도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까?

-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?

-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설명합니까?

-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까?

-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?

적용하기

-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?
- 내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?
-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?

지난 주 말씀묵상 (에베소서 3:7-13)

-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즉, 일꾼됨의 출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.
-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합니다. 이것은 단순히 "작은 자"가 아니라 최상급을 넘어서는 표현으로, 자신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존재임을 강조하는 극도의 겸손 고백입니다.
- 바울에게 은혜가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풍성함은 단순한 풍성함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묘사됩니다. 인간의 언어와 지식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.
- 두번째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. 이 비밀은 "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" 것으로,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. 바울의 사역은 그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이었습니다.
- 하나님의 지혜는 "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" (천상의 존재들, 천사와 영적 존재들)에게 알려집니다. 그 수단은 바로 "교회"입니다.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는 통로가 됩니다.
-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"각종 지혜"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. '각종'은 '매우 다양한', '다채로운'이라는 뜻입니다. 하나님의 지혜가 단순하지 않고 놀라울 만큼 풍성하고 다양함을 나타냅니다.
- 그리고 이 계획은 "영원부터" 세워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근거는 "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"입니다. 이것은 역사적 우연이나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라,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변하는 계획임을 강조합니다.
-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"그 안에서",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고, 방법은 "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"입니다. 성도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, 그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.
-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얻는 두 가지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. 담대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이고, 확신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성막 앞에서 죄인이 가졌던 두려움과 대조되는 복음의 특권입니다.
- 바울이 13절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바울이 받는 환난이 에베소 신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바울은 그 환난이 "너희의 영광"이라고 말합니다. 즉, 자신의 고난은 수치나 실패가 아니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복음 사역의 결과이며,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광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.